

인천정유 인수전 정유3사도 가세

Sinochem-Citigroup에 호남·STX까지 ... 경영파악 중도하자 가능성

인천정유 매각 재입찰에 SK, GS칼텍스, S-Oil, 호남석유화학, STX컨소시엄 등 국내 정유·석유화학기업들이 대거 인수희망서를 제출해 입찰 결과에 따른 국내 정유시장 판도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005년 1월 매각계약이 최대 채권단인 Citigroup의 반대로 무산된 중국의 국영 석유화학기업 Sinochem과 자체 인수희망을 밝혔던 씨티그룹 외에 모건스탠리 등 모두 12사와 펀드가 인수 희망을 표명함에 따라 인천정유 재입찰이 한국과 중국 및 다국적 자본의 다자간 대결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SK와 GS칼텍스, S-Oil 등 국내 정유기업 들이 인천정유 인수희망서를 제출한 것은 인수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수희망서를 제출하면 인천정유의 기업가치나 공장 가동현황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실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정유가 보유하고 있는 정유공장 인수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결정되면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고, 만일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중도하차해도 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하루 정제능력 27만5000배럴인 인천정유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 SK는 하루 정제능력이 84만배럴에서 111만 5000배럴로 늘어나 GS칼텍스와 격차를 100% 가까이 확대하게 된다.

그러나 GS칼텍스가 인천정유를 인수하면 하루 정제능력이 현행 65만배럴에서 92만5000배럴로 늘어나 SK를 제치고 1위로 부상하게 된다.

당초 인천정유 재입찰은 인수 직전에 최대 채권단인 씨티그룹의 반대로 계약이 무산된 Sinochem과 씨티그룹의 맞대결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Sinochem은 중국 내수시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석유제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입찰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총력전을 기울일 태세이고, 최대 채권단인 씨티그룹도 Sinochem과 인천정유의 계약을 무산시키면서 자체 인수희망을 줄곧 밝혀왔기 때문에 양측의 인수희망서 제출은 이미 예견돼왔다.

그러나 SK와 GS칼텍스 외에 S-Oil, 호남석유화학 및 외국계 거대자본인 모건 스탠리마저 인수에 참여할 뜻을 밝히면서 인천정유 매각은 한치 앞을 점칠 수 없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2003년 3월 법정관리 인가를 받은 인천정유는 2004년 9월 중국 Sinochem과 6351억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했으나, 최대 채권단인 씨티그룹 계열 자산유동화 회사인 블루투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관계인 집회에서 낮은 인수가격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혀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체 인수희망을 밝히면서 2005년 1월 매각이 무산됐다.

인천지법은 8월18일 인수 희망가격과 조건 등이 명시된 입찰제안서를 제출받아 가격과 경영능력 및 고용승계 계획 등을 따져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본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까지 매각작업을 종결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5/07/14>